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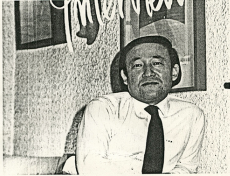
한국의 선과 멋을
찾아낸

최 병훈 교수

년간의 꾸준한 출품 끝에 '89년 대한민국
예대전에서 '태초의 바람'으로 대상을 타
진짜에 귀감이 된 최 병훈 교수는 진정한
예인이라 할 수 있다. 지칠 줄 모르는
기, 한국적인 선, 뛰어난 조형감각,
모든 측면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작품이 수작을 날려 한 것이다.

/기 성호 사진/김 승근

도대체 어떤 욕망과 호감한 느티나무를
이름해 대칭의 비를 최대한 살린 '태초의
바람'으로 대한민국 공예대전에서 대상을 탄
명호 백(경기도 용마리 교수). 평소에도 강
아무리 전달을 위해 욕망을 부분적으로 사
라지,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 길이 가장 아름다운
느티나무를 즐겨 사용한다.
어떤 작품을 하는 데까 과정에서는 대칭이
단한 나무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다. 아름드리 거목을 찍으면서 대칭이 되는
부분을 찾느라 3개월이 걸린 어떤 작품 역시
의 태어난 자연물에서 유추된 것이다. 세의
태를 한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주제가
명호 백의 욕망을 최대한 살린 형식으로 한
형식으로 같은 사의의 결집"이라 평가했다.
음으로 출품하던 작품이 멈춰선 70년도,
대통령을 동양의 기수로 공예분야에 조형성을
조한 작품을 보여주고 노력하기도 했고 앞
연수결정으로 앞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
는 작품을 하고 있다고 한다. 표현에 직접하
고 생각되는 재료는 나무가 아니라도 조공의
용해 예술성을 강조하겠다고 한다.
추진들에게 가진 태도의 비의식을 키우기 위
한 안목을 높이는 작업에 게으르게 할 것을 당
하여 안목을 높이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
임이므로 꾸준히 계속 되어야 한다고. 단면
는 것은 우연이지 작품이 아니라, 자신에
로 노력할 것을 권한다.
'89년부터 시작되던 '세월의 끈끈한 우리'가



있었거나, 모지 못한 자연을 현대적인 우리의
감각에 맞게 표현한 작품들이다. 특히 어떤 작
품의 경우 화려하지 않으면서 세련되고 단아한
매력을 갖춘 조형상의 조화로운 욕망이 사용된
부분의 선의 출몰은 세의 남색과 같은 향을
을 잘 처리했는데, 최 교수는 이 향대를 태초
에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의 동물체였는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재료를 '태초의 바람'이라고
한 이유는 평소 그의 작품 성향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한다.
"목공예는 재료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작
품의 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료에 알맞은
형태를 추구하여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목공예에 있어서 실용성이 중요하겠, 조형성
이 중요해서 대한 질문에 최 교수는 직선은
대형공간이 되지 않는 일들만에 있어서는 조
형성을 강조한 직선으로 재료를 예술성을 강조
하며, 생활을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분야에서 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활
수준으로 제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한다.

올해는 개인전을 할 생각이었으나 큰 상을
타고 보니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내년말에
것을 생각이다. 재료의 다양성과 조형적
다면성으로 최 교수의 작품 세계는 아무
리 한한 사람이라도 예측할 수 없다. 흔하지
않은 목공예 개인전을 기다리며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될 어떤지를 즐기게 될 것이다.
확실히 정정하는 막 연속 비하의 사이에 유
주·수원 두 재료를 두고 있는 최 교수는 지난
연말에는 수장 조식의 거품에 사달렸고, 어떤
3월에는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유주로 인해 학
부모가 되는 기쁨에 또 한편 사달렸고 있다.
자신의 직업상 항상 학생들을 대하고 있거
생명이 아닌 학부모의 입장이 되어 다른 부모
들이 자녀를 처음 입학시킬 때의 설렘을 맛
보게 될 것이다.
앞의 활력은 작가에게만 아니라 작품에 크
게 영향을 미친다. 작년과 올해 일어난 일들이
최 교수의 생활의 율동들이 되어서 더욱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C



대형의 거품들 중 '태초의 바람'